

2026년 NATO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차 례

1. 배경
2. NATO 정상회의 및 한-NATO 협력
3. 평가

주요 내용

- ▶ 2026년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36차 NATO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2개 동맹국 및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와 EU가 참석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IP4(Indo-Pacific Four) 자격으로 NATO 사무총장 및 IP4 대표들과 소인수회의, 방위산업포럼 기조연설 등을 소화함.
- ▶ NATO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문] 6개 항으로 구성된 정상회의 선언문은 실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실효적 성과를 담보함.
 - [방위비 증액 이행 점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NATO 동맹국은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방산 협력, 방위 기술의 혁신을 더 강화하기로 함.
 - [다자간 방위은행] 방위비 지출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방위메커니즘(MDM: 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과 '방위·안보·회복력 은행(DSRB: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 계획 발표
- ▶ 부대행사로 진행된 NATO 방위산업 포럼에서는 차세대 공중 조기경보, 전략 수송 및 급유, 정보·감시·정찰, 탄약 표준화, 드론 등 주요 무기체계에서 NATO-유럽 방산기업 간 계약, 이니셔티브 등이 발표됨.
- ▶ 2026년 NATO 정상회의는 유럽의 방위 역할 및 분담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책 수단(다자간 방위은행)의 중복성, 전략적 방향 제시 기능 약화, 동맹국 간 경쟁 등으로 동맹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됨.
- ▶ NATO 회원국 간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투자 확대는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에서 위기이나, 동시에 NATO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 시 NATO 내 방산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상 타결 노력이 요구됨.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은 '한-NATO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및 방산 원자재 사업 오피서버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동시에 '한-NATO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함.

1. 배경

■ 2026년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36차 NATO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2개 동맹국 및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와 EU 대표가 참석함.¹⁾

-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NATO 방위산업 포럼이 개최되었고, 둘째날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이 채택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IP4(Indo-Pacific Four) 자격으로 NATO 사무총장 및 IP4 대표들과 소인수회의, 방위산업포럼 기조연설 등을 소화함.²⁾

■ 이번 정상회의는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³⁾

그림 1. NATO 동맹국(미국 제외) 방위비 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NATO, "Defence Investment of NATO countries (2014-2026)."

- 1) 32개 동맹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튀르키예,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스웨덴.
- 2) IP4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NATO는 IP4와 방산협력을 추진 중임.
- 3) GDP 대비 5% 방위비는 직접 지출비(운영비, 조달 및 주요 군사시설 건축, R&D 등) 3.5%, 간접 지출비(주요 기반 시설, 안보 관련 대응 등) 1.5%로 구분됨.

2. NATO 정상회의 및 한-NATO 협력

가. 정상회의 관련 주요 내용

-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문] 6개 항으로 구성된 정상회의 선언문은 실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실효적 성과를 담보함.⁴⁾
- [집단 방위 및 결속 재확인] NATO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과 대서양 유대 재확인
- [국방 투자 및 산업 역량 강화] 정상들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함.
 - △ 2025년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방위비 직접 지출비로 1,390억 달러 이상 증액, △ 5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계획 발표 및 제조 역량 확대와 산업계의 혁신 가속화 합의, △ 동맹국 간 방산 무역장벽 제거 지속 및 NATO 파트너십을 활용한 방산 저변 및 협력 극대화 명시
- [동맹의 현대화와 기술 혁신] 유럽과 캐나다가 ‘현대화된 동맹’을 강조하며 동맹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방향성을 지향함.
 -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AI 모델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또한 대서양 전역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를 개발함.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NATO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주권·영토 보전을 위해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2026년에는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장비 및 훈련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기타 안보 위협 대응]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및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존중을 촉구하며, 하이브리드 위협 및 전략적 경쟁 등 광범위한 안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함.

글상자 1. NATO 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 [2021년 브뤼셀 정상회의] △ ‘NATO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맹의 정치군사적 강화, △ 중국의 위협 공식화 및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 경고, △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공격도 방위조약 5조(집단 방위) 발동 공식화
-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신전략개념 채택(러시아,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 중국,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
-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 △ 방위비 지출 하한선(GDP 대비 최소 2%) 합의,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관련 절차 간소화
- [2024년 워싱턴 정상회의] △ NATO 창설 75주년, △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 사령부(NSATU: NATO Security Assistance Ukraine) 신설, △ 중국을 러시아의 핵심조력자로 명시, △ NATO-IP4 간 첫 공동협력 사업 채택
-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 △ 2035년까지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합의, △ 방산무역 장벽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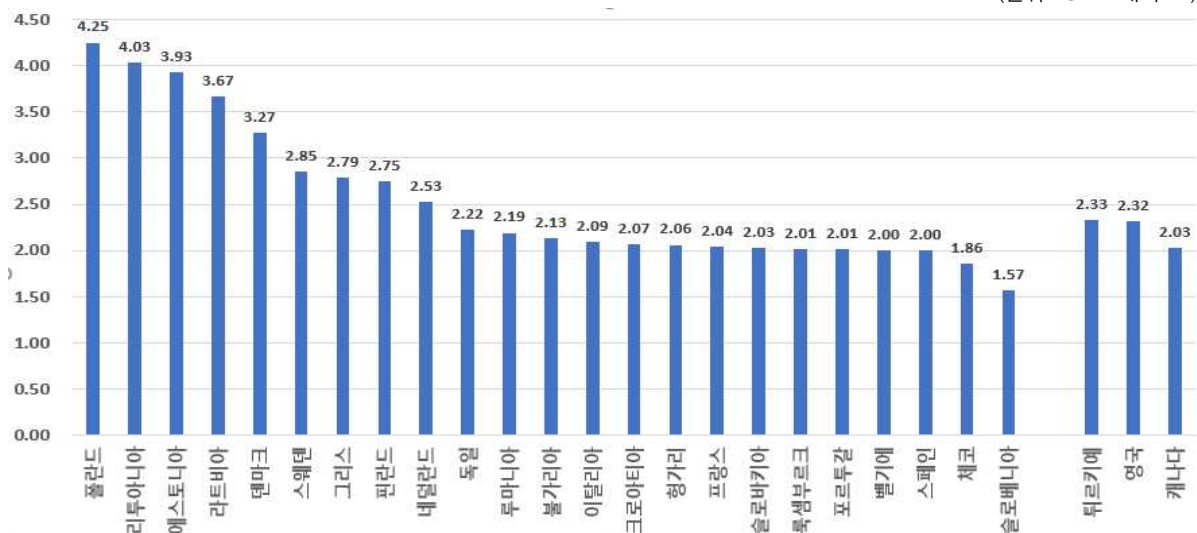
4) NATO(2026. 7. 8.), “The Ankara Summit Declaration”(검색일: 2026. 7. 9.).

■ [방위비 GDP 대비 5% 증액 이행 관련]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 이후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국적 방위은행 논의가 발표됨.

-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NATO 동맹국은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방산 협력, 방위 기술의 혁신을 더 강화하기로 함.
- NATO 집계 기준으로 2025년 유럽과 캐나다의 방위비(직접 지출)는 전년비 1,390억 달러 증가하면서 6,538.1억 달러를 기록함.
 - NATO 동맹국(유럽 및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3.76%이며, 이 중 직접 지출은 2.31%, 간접 지출은 1.45%로 추산됨(그림 1 참고).
 - 동맹국별 방위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방위비는 GDP 대비 4.2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순임(그림 2 참고).⁵⁾
- 미국은 회원국별 이행 격차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 불균형을 재차 비판함.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스페인이 2035년까지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두고 거둬 비판함.⁶⁾

그림 2. NATO 내 EU 회원국 및 주요국의 방위비 직접 지출 규모(2025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NATO, "Defence Investment of NATO countries (2014-2026)."

- 방위비 지출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국적 방위은행에 대한 계획이 발표됨.
 -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4개국이 다자간 방위메커니즘(MDM: 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을 2027년 출범한다는 목표를 발표함.⁷⁾
 - * MDM을 통해 방위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국방 투자 가속화, 공동 조달 촉진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핵심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다자간 방위메커니즘의 참여국을 확대하기로 함.

5) 2025년 명목기준 NATO 내 EU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금액(백만 달러): 독일 1,121.4 / 프랑스 688.9 / 이탈리아 532.9 / 폴란드 441.5 / 스페인 381.1 / 네덜란드 298.2.

6) CNBC(2026. 7. 8.), "Trump pours cold water on NATO allies' united front"(검색일: 2026.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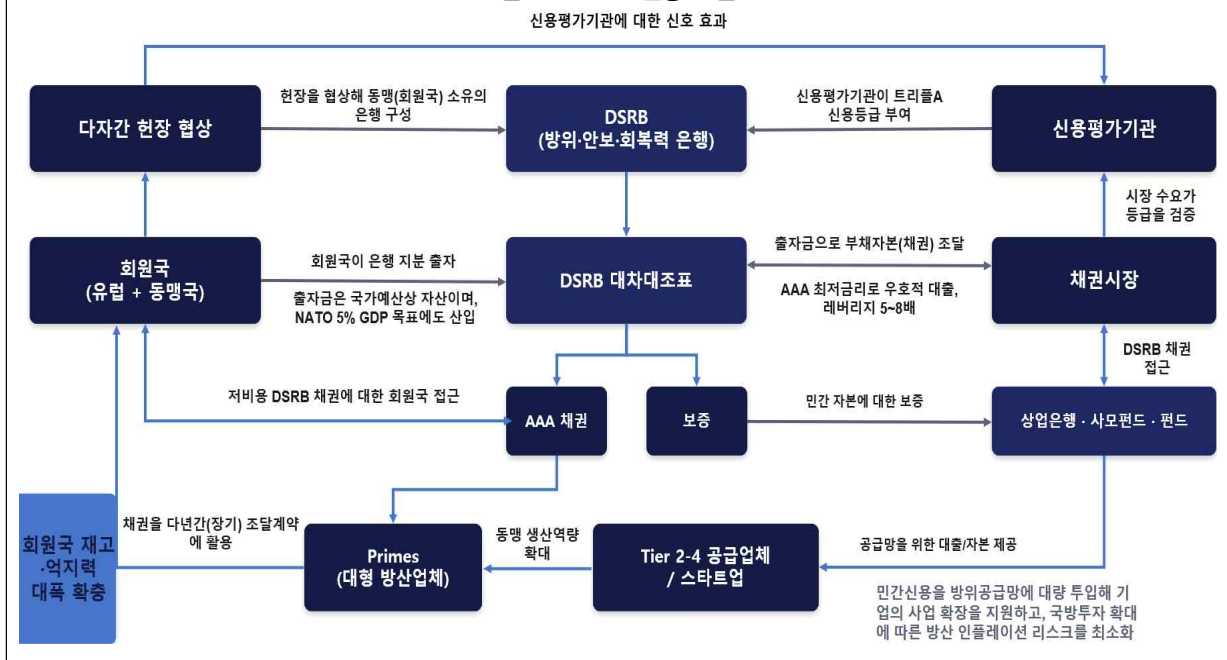
7) Gov.UK, "Joint Statement from member countries of the 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검색일: 2026. 7. 10.).

- 캐나다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위·안보·회복력 은행(DSRB: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을 공식화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다자간 금융기구 구상을 발표함.

글상자 2. DSRB의 주요 내용

- [참여국] 주도국(캐나다)+8개국(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지지 표명
- [설립 배경] 방위비 증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동맹국의 방위 투자 확대, 산업 역량 강화, 국방·안보·회복력 강화를 위한 민간 자본의 대규모 동원 필요성 증대
- [설립 연혁]
 - 2025년 초 제안 후, 2025년 3월 23~26일 기간 중 몬트리올에서 18개국 대표가 참여하여 은행 거버넌스와 운용에 관한 현장 마련 목표로 협상
 - 2026년 4월 29일 DSRB에 대한 다자협상 타결
- [은행 운영]
 - 방위, 안보, 회복력 강화 사업에 장기 저금리 자금 제공
 - 회원국의 우선 투자 사업에 대한 대출 제공
- [운영 목표] 2027년 초 운영 시작

그림 3. DSRB 운용 흐름도



자료: DSRB, "What is the DSRB"(검색일: 2026. 7. 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또한 동맹국 방위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행동 촉구(call to action)'가 발표됨.
- NATO 동맹국들은 민간 자본 투자자들에게 방위 역량에서의 기술 개발 및 제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동맹 전반에 걸친 방산 생산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자본 활용을 통한 방산 혁신 생태계 육성 등을 촉구함.

나. 방위산업 포럼(Defence Industry Forum)

■ NATO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방위산업 포럼에는 회원국 고위 당국자 및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중요한 계약 체결 및 합의 내용이 발표됨.

- [공중 조기경보] NATO의 차세대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 플랫폼으로 기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후속으로 스웨덴 Saab의 GlobalEye가 선택됨.
 - 2035년 퇴역 예정인 E-3 AWACS의 대체기로 당초 미 공군의 E-7A 웨지테일에서 유럽산 플랫폼으로 전환
 - 이번 결정은 유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환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으로, NATO 핵심 공동자산에서 미국산이 유럽산으로 대체된 최초의 사례임.
 - NATO의 지원 및 조달 기구인 NSPA와 스웨덴 Saab 간 협상이 즉시 개시됨.⁸⁾
- [전략 수송 및 급유] 다국적 폴링 모델의 확장⁹⁾
 - 벨기에, 크로아티아,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7개국이 에어버스의 A400M 군용기 도입을 위한 새로운 고(高)시인성 프로젝트(High Visibility Project)를 출범함.
 -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다국적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에도 참여하기로 한바, 9개 MRTT 참여국은 열 번째 급유기 인도가 임박했다고 발표함.¹⁰⁾
- [정보·감시·정찰] 노스롭그루먼의 고성능 고고도 장거리 채공 무인 항공기인 MQ-4C Triton을 최대 5대 까지 NATO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전력에 통합하기로 함.¹¹⁾
 -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발표한 프로젝트의 항공기인 MQ-4C Triton은 15km 이상 상공에서 24시간 비행 가능하며, 해상 교통로 보호 및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의 작전 지원이 기대됨.
 - GlobalEye와 Triton의 병행 조달은 유럽 방산의 자율성 진전과 대미 관계 관리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평가됨.
- [탄약 표준화]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튀르키예 9개국이 나토 공용 155mm Vulcano 유도탄 시스템 조달 계약에 합의함.¹²⁾
- [드론] NATO Drone Edge 이니셔티브 출범¹³⁾
 - 향후 5년간 대드론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부품 조달 간소화를 위한 드론 시장 구축, 2027년 말까지 드론 운용 요원 5배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됨.

8)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NSPA(NATO Support Procurement Agency)는 NATO의 물류 지원 및 조달 활동을 통합하여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다국적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임. NATO로, "NATO Support and Procurement Agency(NSPA)"(검색일: 2026. 7. 11.).

9) NATO(2026. 7. 7.), "NATO allies expand strategic airlift capacity"(검색일: 2026. 7. 11.).

10)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1) NATO(2026. 7. 7.), "NATO expands it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leet with the purchase of Triton aircraft"(검색일: 2026. 7. 11.).

12) NATO(2026. 7. 7.), "Contract signed for 155 mm guided ammunition under NSPO's ammunition support partnership"(검색일: 2026. 7. 11.).

13) NATO, "NATO's Drone Edge"(검색일: 2026. 7. 11.).

다. 한-NATO 협력 관련 주요 내용¹⁴⁾

■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면담에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합의함.

- 2021~25년 기간 NATO 내 유럽 회원국의 무기 수입 중 58%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8.6%), 이스라엘(7.7%), 프랑스(7.4%) 순으로 나타남.¹⁵⁾
 - NATO 동맹국 중에서는 폴란드의 무기 수입이 전체 NATO 유럽 회원국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은 폴란드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함.
- NATO와 파트너국 간 군수 및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 연 15조 원(99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NATO 공동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다국적 협력 사업] 기존 탄약 및 우주 사업에서 오피서버로 참여한 것 이외에 방산 원자재 사업 오피서버로 신규 참여

- 한-NATO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 조성, 나토 우주 인프라를 활용한 적시 우주 발사 기회 확대 효과 기대

■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영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함.

- NATO 가입에는 명확한 선을 그으며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하는 외부 국가 지위를 강조함.
- [혁신 및 우주] 민간 혁신 기술 평가 및 검증 플랫폼인 ‘NATO 혁신 훈련장’에 한국 기업 참여 추진,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한국 우주기업 참여 예정

■ [양자 및 소다자 회의] NATO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와의 양자회담, 캐나다와의 약식 회동을 통해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NATO 사무총장 및 IP4 소인수회의에 참여

14)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6. 7. 8.),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 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검색일: 2026. 7. 11.).

15) SIPRI(2026),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5.”

3. 평가

■ [NATO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2026년 NATO 정상회의는 유럽의 방위 역할 및 분담 확대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정책 수단의 중복성, 전략적 방향 제시 기능 약화, 동맹국 간 경쟁 등으로 동맹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됨.

- NATO 내에서 유럽의 역할이 확대되는 일명 'NATO 3.0'을 위한 시발점으로 평가되며,¹⁶⁾ 미국의 관여 속에서 향후 6개월 내 유럽 주둔 미군 배치 및 기지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NATO 5조(집단 방위)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유럽 및 캐나다에서 러시아가 침공 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조치로 해석됨.¹⁷⁾
 - NATO 3.0이 동맹국 간 경쟁이 아닌 표준화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 전체가 소수의 공동 플랫폼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함.¹⁸⁾
- NATO 내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복수의 다자간 방위은행(MDM vs DSRB)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됨.
 - 유럽 주요국이 DSRB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영국이 주도하는 MDM이나 EU SAFE와 경쟁 또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국이 빠진 상황에서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¹⁹⁾
- 정상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 투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러시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앙카라 정상 선언문에서 명시된 역량 투자 분야 역시 새롭게 논의된 것이 아니라 2025년 NATO 동맹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임.²⁰⁾
- 전략적 방향성이 부재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안보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시할 경우, 중요한 방위·안보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음.
 -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공동으로 추진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주계약업체 선정, 설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²¹⁾

■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 NATO 회원국 간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투자 확대는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한국은 NATO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NATO 내 방산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 NATO-IP4 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NATO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16) 뤼테(Rutte) 사무총장은 "We are balancing our security for the better, and that is what NATO 3.0 is all about"이라고 말함. NATO, "Secretary General on the Ankara Summit: NATO delivers"(검색일: 2026. 7. 12.).

17) Breaking Defence(2026. 7. 10.), "Six takeaways from the 2026 NATO Summit"(검색일: 2026. 7. 12.).

18) National Interest(2026. 7. 9.), "What the NATO Ankara Summit Missed"(검색일: 2026. 7. 13.).

19) EU SAFE는 1,500억 유로 규모의 EU 차원의 회원국 방산무기 구매 관련 대출보증 프로그램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오태현(2025),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NATO(2026. 7. 6.), "NATO's role in capability development"(검색일: 2026. 7. 13.).

21) National Interest(2026. 7. 9.), "The 'FCAS' Franco-German Fighter Jet Program is Officially Dead"(검색일: 2026. 7. 13.).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NATO의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닌 안보와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협력자라는 것을 의미함.

-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NATO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NATO의 표준화 협정(STANAG: Standardization Agreement)은 동맹국 간 비용 절감 및 기술·무기 상호운용성 차원에서 중요한바, 조달 기본협정을 통해 STANAG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²²⁾
- NATO 내 유럽의 역할 확대와 방위산업 강화를 통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가 한국 방위산업에 위기로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럽의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 한국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대유럽 및 대NATO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략 마련과 대유럽 및 대NATO 아웃리치 강화가 요구됨. **KIEP**

22) STANAG에 대한 정보 접근은 NATO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국의 접근이 제한적임.